

여성가장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효과 연구

정은미*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교육 팀장)
강기정 (천안대학교 기독교복지학 전공 조교수)

우리 사회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여성가장 세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양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립능력 부족은 곧 이들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들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여성가장들이 가지고 있는 긴장과 스트레스, 불분명한 분노감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특성은 사회생활 적응에 있어서의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이와 함께 직업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을 병행함으로써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것은 이들의 자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장을 위한 복지지원체계로서의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접근방안을 모색코자, 직업훈련과 병행한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여성가장의 자립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그 가족들이 가족해체의 위기에서 벗어나 여성가장 세대라는 새로운 생활양식에도 건강하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천안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전통음식 전문가 과정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A그룹 12명을 실험집단으로, 동 센터 사무자동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B그룹 10명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여 집단프로그램을 실험적 처치로 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는 통제집단 간의 자립능력을 비교하기 위한 자아존중감·직업능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pretest-post test control troupe design)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가장의 자아존중감과 직업능력은 통제집단에 비해 높아졌다. 둘째, 회기별 집단성원간의 양상은 회기가 지날수록 응집력이 강화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배양되었다. 셋째, 집단성원의 개인별 변화는 전반적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가 증진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과 같이 여성가장들을 심리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여성가장들을 중심으로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심리적지지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실질적인 직업훈련이나 창업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